

† 찬미예수님

결점이 있을수록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단점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숨어 있는 자신의 가라지를 찾아내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의 도움을 더욱 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복음에서 처럼 주님께서는 내 안에 심어진 가라지를 모두 뽑아 주실 것입니다. 가라지를 인정하고, 치유해 나가며, 더불어 선하고 좋은 면을 발견하고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

2017년 7월 23일 연중 제16주일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4-43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24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26 쫓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27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29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밭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30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밭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31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32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33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34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36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37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38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40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41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42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43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주임신부 이야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휴가 중이라 여러분을 여기서 만나지 못했네요.

휴가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갔다왔습니다. 듣던 대로 정말 멋진 자연의 세계였습니다. 뭐랄까?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지만, ‘와’하는 감탄만 쏟아낼뿐 언어의 부족 그 자체였습니다. 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자연의 신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비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숨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제 생각과 관점이 얼마나 좁고 짧은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어쩌다 만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착각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철학에서는 사람을 '소우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동감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매일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웃을 쉽게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말고 좀 더 열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2017년 7월 셋째주 공지입니다.

<지난행사>

주보나눔 봉사(7/16)

금채은 소피아, 최보나 가브리엘라 자매님, 감사합니다!

=====

주보나눔 봉사(7/23 주일)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 감사합니다!

기증도서 대여

허은희 마리아 성모회 회장님께서 청년들을 위해 기증해주신 다수의 도서가 사랑방에 있습니다. 혹시 정리 전에 대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랑방 도서 대여 임시 명단' 작성 후 대여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영적도서 및 자료 구입 - 링크에 명단

걷기행사 후원금으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구입 자료는 사랑방에 비치될 예정이며, 함께 공유하고 대여도 할 예정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고 원하는 영적 도서, 영상자료의 제목을 회장단에 알려주시거나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적교육 희망자료 목록: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5BOqoTfNLAVhxMs_avA1c7wrs_yYBI8-pLCP1chh74/edit?usp=sharing

지금까지 받은 희망 자료들은 주임 신부님과의 상의하여 구입할 예정입니다.

사랑방 소식 - 냉장고

사랑방에 새 냉장고를 구입했으며 이번 토요일에 배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회합시 협의 결정한 대로 우리 하모니가 주로 냉장고를 이용하므로 이 금액을 우리 회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조금씩 부담하여 냉장고 구입 비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구매에 애써준 홍세레나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비용은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계 수련회 일정 (9월 중 2박 3일)

하계 수련회 날짜가 9/15(금)-9/17(일)로 확정 되었습니다. 참석 여부를 7월말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모니 회비

회합시 의견을 반영하여 하모니 회비를 올해 후반기인 7월부터 연 2회, 6개월에 \$20에서 **\$40불로 인상**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회비는 감사 헌금/봉헌 및 하모니 이름으로 전달되는 선물, 또한 기타 하모니 행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단, **새로 오신 분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드리며 이 기간 동안의 회비 납부는 본인의 뜻에 맡깁니다.

북가주 성령대회 (8/12 토)

북가주 6개 성당이 함께하는 성령대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아, 우리 오클랜드 성당(지도 신부: 최기홍 발토로메오)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성당에서 개최하는 만큼 손님들을 잘 맞이하고 우리 공동체를 빛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대회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신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앙대회입니다.

일시: 8월 12일(토) 오전 8:30 - 오후 8:30

장소: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주제: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에제 37,5)

강사: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참가비: \$25.00(점심/저녁 제공) - 당일, 또는 미리 친교실에서 신청

1. 북가주 성령대회 감사봉헌

하모니와 트락회가 함께 성령대회를 후원하는 감사 봉헌을 합니다. 각 단체에서 \$100씩 보태어 책자에 전면으로 봉헌되며, 성경 말씀(데살로니카 1서, 5-16-5,18), 축하의 글, 그리고 청년회 소개가 함께 올려집니다.

2. 청년회 봉사 (8/12토)

우리 공동체에서 개최하는 성령대회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청년회에서 자원봉사할 계획입니다. 성령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은 일정 중간중간에 봉사하고, 그 외의 분들은 가능한 시간대에 봉사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거나 안내 등의 봉사를 성령 기도회와 상의중에 있습니다.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3박4일) - 선착순 30명

최 주임 신부와 약 30명의 교우분들이 함께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를 갈 예정입니다. 신청은 선착순입니다. (일정, 첨부파일 참고)

- 순례기간: 9월 3일 (주일)-9월 6일 (수)

- 비용: \$1,350 /1인; 항공권, 순례비용, 숙식 포함

1531년 최초 성모님 발현지인 멕시코 시티의 과달루페 성지 순례에 신부님과 교우분들이 동행할 수 있는 뜻깊고 좋은 기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선금과 함께 최대한 빠르시안 안에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7월 30일).

가톨릭 성서모임 노트정리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성서모임 중 하나라도 마친 분들중에 노트검사/싸인을 받지 못한 님들은 노트를 정리해 7월 30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임신부님과 수녀님께서 검토 확인 후 서명해주십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봉사자 회합

8월 26일 (토) 오전 10시 교육관 107호실에서 가톨릭 성서 모임 봉사자 회합이 있습니다.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주임신부님 영명축일이 8월 24일입니다. 영적 선물 봉헌서를 작성하여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8월말/9월초 시작)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시작이 8월말/9월초로 연기되면서 앞으로 8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가 7월 22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7월 22일 (목) 오후 4시

장소 : 722 Washington St. Oakland

문의 : 이명국 바오로 [510-520-7771](tel:510-520-7771)Ca

향심기도회 침묵 피정

향심기도회 침묵 피정이 7월 28일 부터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황혜정 데레사 자매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7월 28일 (금) - 7월 30일 (일)

장소 : 댄빌 산 다미아노 피정 센터

회비 : \$250/ 독방 \$290

문의 : 황혜정 데레사 [510-384-0895Ca](tel:510-384-0895)

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반, 초급반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한글(우리문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봉사이지만 시간당 일정한 활동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정인경 가브리엘라 자매님 (ikkim324@yahoo.com)께 문의 바랍니다.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